

미혼 여교사의 배우자 선택에서의 동질혼 추구 경향

조병은* · 이종희^{1)**} · 이현정*** · 곽선정****

한국교원대학교* · 울산문현고등학교** · 경포여자중학교*** · 인천여자고등학교****

Female Teachers' Mate Selection Preferences in Social, physical, psychological and family role characteristic

Cho, Byung Eun* · Lee, Jong Hui^{**1)} · Lee, Hyun Jung*** · Kwark Sun Jung****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Ul-San Mun-Hyun High School** · Kyongpo Girls' Middle School*** · Incheon Girls' High Schoo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ate selection preferences of single female teachers by investigating the desired traits in socioeconomic, physical attractions, psychological traits and family roles of their prospected marital partner, in order to explore the current trends in homogamous marriage.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295 unmarried female teachers selected by convenience sampling from the various cities. The teachers pursued homogeneity in age, educational attainment, religion, and occupation while they preferred partners with higher income level. In terms of physical assets, the attraction that the teachers felt towards the partner was the most important physical appearances. The respondents preferred partners who are masculine and an androgynous partner. The teachers held high expectations towards their future spouses in that they desired to share the roles of emotional, financial support, child care and kin keeping. A partner who shared modern sex role attitudes was preferred over someone who held traditional one. The pursuit for overall homogeneity reflects that the teachers seek for equality in their relationships with prospected marital partners by exchanging similar characteristic.

Key words: 미혼여교사(Female Teachers), 배우자 선택의 선호도(Mate Selection Preferences), 사회경제적 특성(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성격 특성(personal traits), 신체적 매력(physical attraction), 역할가치관 특성(value systems in family role)

1) 교신저자: Lee, Jong Hui, Mun-hyun high school, Bang-u-dong 1008, Ul-san 682-806, Republic of Korea
Tel: 052-201-6901, E-mail: spmaru@hanmail.net

2) 본 연구는 한국교원대학교 2012학년도 KNUe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결혼은 가문의 영속과 번영을 위한 양가의 결합 수단이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진출증가, 교육수준의 향상, 남녀평등사상의 증가로 남녀 간의 교제가 자유롭게 허용됨에 따라 자유의사에 의한 결혼이 많아지고 배우자 선택의 기준이 다양해지며, 기간 그리고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 결혼에 대한 규범이 의무에서 선택으로 변화되고 결혼의 목적으로는 개인의 행복이나 자아실현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부부관계가 애정적이고 동반자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Lee & Shin, 2000; Kim & Kim, 2005; Kang, Chin, & Ok, 2010). 배우자 선택은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중의 하나이며, 성공적인 배우자 선택 과정은 자신과 배우자간의 자질과 특성을 파악하여 자신과 가장 잘 어울리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 행복한 결혼을 위한 필수 단계라 할 수 있다(Yoo, Kim, & Kim, 2008).

배우자간의 선택은 전통사회의 가문에 의한 선택에서, 근대화·도시화 사회의 개인중심 선택으로 변화하면서 결혼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여성들은 배우자간의 경제적 능력이나 지위, 건강 등의 특성을 중시하여 상향혼을 추구하였다(Lee & Cho, 1994; Hong Dal, 2003; Yoo, 2007). 이에 반해 남성들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중시하기보다 개인의 연령과 신체적 매력을 중시하였다(Kim, Park, & Jung, 2009). 여성이 사회경제적 특성을 갖게 되면서 배우자 선택의 권한이 남녀 모두 동등하게 되었고,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하므로 평등한 부부관계를 추구하고 되었다(Shin & Cho, 2009; Lee & Park, 2009). 즉, 여성들은 남편들의 가족역할 참여와 역할분담을 하는 배우자감을 추구하고, 자신이 가진 특성이 늘어나면서 배우자의 사회경제적 능력 외에 개인의 다양한 자질과 특성을 선호할 수 있게 되었다.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배우자 선택과정이 길어짐에 따라 서구에서는 배우자 선택과 관련된 이론들이 발달되었다. 미혼 남녀가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 개인의 자질과 특성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선택 이론에서 제시한 특성들은 배우자 선택의 조건으로 작용된다. 사회경제적 특성, 신체

적 특성, 심리적 특성, 역할가치관이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특성으로 제시되고 있고, 특성들은 유사한 교환이나 이질적인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여과망 이론과 SVR 이론에 의하면 사회적 특성, 신체적 특성, 역할가치관 등과 같은 특성은 유사한 것을 교환하고, 성격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것을 선호하여 이질적인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하였다(Chung, 2003). 교환 이론에서는 배우자로부터의 보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자신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거나 자기보다 더 높은 특성을 가진 사람을 추구한다고 가정하고(Lee & Cho, 1994), 공평성 이론에서는 공평한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동질혼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Shin & Cho, 2006). 따라서, 배우자 선택에서 사회계층, 연령, 종교, 생활방식, 가치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자신과 유사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동질혼의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Chung, 2003; Yoo, Kim, & Kim, 2008).

한편, 우리나라의 배우자 선택에 대한 연구는 연령·교육수준·종교·직업지위·건강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신체적 특성, 가정환경(부모의 지위), 성격 등을 상대방의 조건으로 보고 그에 대한 선호도를 본 연구가 대부분이다(Cho, Chong, & Moon, 1996; Kim, Kim, & Yoon, 1997; Song, 1998; Hong Dal, 2003; S대, 2008).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상대방의 특성만 보고자 했고 자신의 자질과 특성을 파악하고 적합한 배우자의 제반 특성을 선호하고 선택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또한, 성격을 보았으나 구체적 성격 특성이라 성인기에도 변화하지 않는 성격이나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상보적 성격특성은 보지 않았다(Kim et al., 1997; Hong Dal, 2003; Seo, 2008). 이혼의 주된 사유가 성격(The Statistics Korea, 2011)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결혼 전부터 본인과 배우자간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배우자 선택의 연구에서는 성격과 성역할특성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결혼 후 가족역할 분담과 공유, 성역할가치관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배우자 선택 이론에서 제시한 사회경제적 특성,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역할 가치관의 특성들을 모두 고려한 배우자 선택의 연구가 필요하다.

배우자 선택에 관한 선행연구 대부분의 연구대상은 대학

생(Kim, 1999; Hong Dal, 2003; Seo, 2008)이고 일부 대학생과 미혼(Kim et al., 1997)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배우자 조건에 대해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이 선택한 배우자 조건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여성이 직업과 수입을 갖게 되면서 남성의 경제력 이외에도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역할가치관 특성을 고려하게 되었으며 전문 직종을 가진 여성들의 배우자 선택의 조건이 다양해졌다. 이러한 전문직 여성의 배우자 선택에 대한 선호를 통해 앞으로 직업여성들이 결혼을 선택하는데 어떤 특성을 중요하게 선호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미혼 전문직 여성을 대표하는 여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자질이나 특성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본인과 배우자간의 사회경제적 특성,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역할가치관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여 각 영역에서 동질혼을 추구하는지, 혹은 이질혼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경향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 1) 본인과 배우자간의 사회경제적 특성(연령, 교육수준, 직업, 수입, 종교)에 대한 동질혼 경향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 2) 본인과 배우자간의 신체적 특성(신체적 매력)에 대한 동질혼 경향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 3) 본인과 배우자간의 심리적 특성(성격, 성역할 특성)에 대한 동질혼 경향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 4) 본인과 배우자간의 역할가치관(역할 기대감, 성역할 태도)에 대한 동질혼 경향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배우자 선택과정의 변화

배우자 선택과정은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결혼은 성인이 되면 치르는 통과의례, 인륜지대사로 인식되었으며 개인보다는 가족이 선택하고 결정권을 갖는 경향이 컸다(Chung, 2003; Jung, 2005; Yoo et al., 2008). 산업사회에서는 도시화에 따라 핵가족이 많아지고 결혼을 결정하는데 부모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남성만이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짐에 따라 여성보다 결혼 결정의 선택권이 컸으며 남성의 경제적 특성은 여성의 연령이나 신체적 매력을 배우자 선택의 특성으로 중시하여 여성은 동질혼 내지 상향혼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었다(Jung, 2005).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짐에 따라 배우자 선택에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선택도 가능하게 되어 결혼의 목적이 개인의 행복과 성장, 자아실현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결혼관련 통계에서도 나타나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초혼 연령이 상승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나이가 많은 연상연하 커플들이 늘고 있으며, 배우자감에 대해 선호하는 직업도 달라졌다.

최근의 혼인, 이혼관련 조사에서 15세 이상 여성의 46.3%가 결혼은 선택이라고 응답하여, 결혼은 누구나 해야만 하는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남성의 시각도 달라져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는 필수(20.7%)보다 선택사항(29.8%)이라고 응답한 남성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2011년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9.1세로 2001년에 비해 2.3세가 높아졌고, 남성은 29.5세에서 31.9세로 높아졌다(The Statistics Korea, 2012). 또한, 2011년 결혼한 초혼 100쌍 중 15쌍은 여성이 연상으로 나타났는데, 여성 연상 커플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결혼 시기를 미루는 만혼 풍조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배우자감의 직업에 대한 선호도도 10년 전과 차이를 보

이고 있다. 미혼 여성, 남성 직장인 61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 2002년에는 여성 직장인이 소프트웨어개발자를 1등 신랑감으로 뽑았으며, 외환딜러, 공무원이 그 뒤를 이었고, IT·벤처 관련 직업이 상위에 올랐었다. 그러나, 현재는 ‘안정’ 또는 ‘고소득’을 대표하는 공무원에 이어 금융자산운용가, 의사, 한의사, 교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남성 직장인들이 1등 신부감의 직업으로 꼽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교사’로 나타났으나 2002년엔 상담전문가·쇼핑호스트·프리랜서·치료사였으나 2011년에는 공무원·간호사·금융자산운용가·약사가 차지했다(중앙일보, 2011.10.12.).

배우자 선택의 변화과정을 시대별로 분석한 연구에는 Yoo(2007)와 Park et al.(2005)의 연구가 있다. Yoo(2007)의 연구에서는 이성교제와 연애결혼을 중심으로 자유혼과 중매혼의 변화과정을 시대별로 분석하였다. 1945년부터 1960년대 중반에는 전통적인 규범이 지배하는 시대로 유식계층을 중심으로 음성적인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애결혼의 사례는 드물었고 중매혼이 지배적인 형태였으며 교제기간은 짧았고 주변인의 소개로 결혼이 성사되었다. 1960년 후반부터 1980년 중반에는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된 시기로 대학에서 이성교제가 보편화 되었고 연애혼이 증가되었으나 자녀는 부모를 설득해야 결혼 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중매혼은 전문중재인의 역할이 크게 대두되면서 선택의 범위가 지역적으로 확대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중반에는 이성교제가 빨라지고 보편화 되어 이성교제 경험은 젊은층의 발달과업 또는 통과 의례로서 의미가 있었으며 연애혼이 증가하였으나 중매혼은 여전히 공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배우자의 조건을 중시하고 능력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후에 사랑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공리주의적 입장과 결혼의 최종 결정이 개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Park et al.(2005)에서는 IMF 경제위기가 배우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사회경제적 특성인 교육수준과 취업이 결혼시기와 배우자 선택의 변화를 초래하여, 1990년 이전에는 남녀 모두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초혼시기가 늦었으나 1990~1997년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혼시기가 빠르게 나타났다. 남성들의 높은 교육수준은 남성에게 좋은 직장이 보장되고 여성들의 교육

수준은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특성으로 작용되어 결혼 연령이 빨라졌다. 그러나 1998년 IMF 이후에는 교육수준과 취업이 초혼시기에 영향을 주어 결혼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동기가 증가되어 결혼에 대한 규범적이고 필수적인 태도가 약화되면서 결혼에 대한 가치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1990년대 교육 동질혼의 경향은 고학력 여성이 시장력이 있는 남편을 통한 대리적 지위획득을 가능하게 하였으나 경제위기 이후로 여성들에게 결혼은 더 이상 지위획득의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있는 여성들에게 결혼의 필연성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한다.

따라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취업으로 인해 결혼이 개인의 선택으로 변화되었으며 결혼의 유형은 중매혼에서 자유혼으로 늘어나고 있다. 남녀 모두 개인의 자질이 배우자 선택의 특성으로 중시되고 특히 직업여성들은 결혼의 선택권이 커짐에 따라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배우자 선택에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는 다른 특성에 대한 선택권이 커지고 다양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배우자 선택의 동질혼과 이질혼 경향

배우자 선택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자질이나 특성은 서구의 배우자 선택의 이론에서 체계적으로 논의 되어왔다(Kerckhoff, A.C., & Davis, K.E., 1962; Ross, C. E., 1995; Sprey, J., 2000). 개인의 사회적 특성, 신체적 특성, 가정 환경의 비슷한 조건의 선호나 선택을 강조하는 이론은 교환 이론과 공평성 이론, SVR이론이며 상보적 욕구 이론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의 이질혼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교환 이론에 의하면 결혼시장에서 남녀의 교제가 이성적이며 계산된 행위이고 개인이 지닌 물질적·비물질적인 제반 특성에 의해 배우자 선택이 이루어지는데 자신에게 최대의 보상을 줄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함으로써 특성의 질과 양이 상호 평형을 유지하는 동등한 결합을 한다고 하였다(Lee & Cho, 1994). 교환 이론을 보다 정교화한 공평성 이론에서는 인간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보상을 더 얻

거나 대가를 더 지불하는 관계를 원치 않으며 공평한 관계를 원한다고 가정한다(Shin & Cho, 2006). 공평성 이론은 공정한 거래에 매력을 느끼고 서로가 특성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특성의 질과 양의 상호 형평성을 고려한다(Chung, 2003). 여과망 이론에서는 사회적 특성, 신체적 특성, 역할가치관, 상호보완적 성격을 배우자 선택의 조건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사회적 특성,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역할가치관을 포함하고 있다. 여과망 이론과 SVR 이론에 의하면 사회적 특성, 신체적 특성, 역할가치관 등의 특성은 유사한 특성간의 교환이 이루어져 동질혼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성격에서는 상호보완적인 것을 선호하여 이질혼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개인과 개인의 선택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질혼의 가능성이 늘어날 수 있으나 서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가치관, 생활방식 등이 자신과 유사한 동질혼이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족, 인종, 모국어(언어), 종교, 교육수준 등에서 동질혼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Kalmijn, M., 1994; Lichter, D. T., Anderson, R. N., & Hayward, M. D., 1995; South, S. J., 1991; Stanley, S. M., & Markman, H. J., 1992; Surra, 1990).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동질혼과 이질혼 경향을 적용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3. 선행연구 고찰

서구의 배우자 선택에 관한 동질혼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다(Kalmijn, M., 1994; Lichter, D. T., Anderson, R. N., & Hayward, M. D., 1995; South, S. J., 1991; Stanley, S. M., & Markman, H. J., 1992; Surra, 1990). 결혼 시장에서 개인의 자질 또는 특성을 교환하는데 있어 연령, 교육, 직업지위, 수입, 종교, 심리적 특성, 생활방식, 역할가치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자신과 유사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동질혼의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배우자 선택에 대한 연구는 교육·직업지위·수입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 외모, 태도 그리고 성격 등과 같이 배우자 선택의 조건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연구대상 또한 미혼 여대생으로 그들

이 미래에 희망하는 배우자간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알아보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Hong Dal, 2003; S대, 2008). 이들 연구에 의하면 비슷한 수준의 학력과 집안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직업 지위에서는 전문직을 선호하고, 높은 수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외모를 선호하였으나 최근 들어 남녀 모두가 매력적인 외모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Kim et al., 1997; Seo, 2008). 1990년대의 연구에서는 남성들이 신체적 매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Kim et al., 1997) 반면 2000년대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배우자 선택의 연구(Seo, 2008)에서는 볼륨 있는 외모와 근육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모두 신체적 매력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매력적인 외모가 남녀 모두에게 동등하고 중요한 배우자 선택의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 선택 시 중요한 특성으로 작용되는 심리적 특성이나 역할가치관과 같은 구체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 연구에서 성격을 배우자 선택의 중요한 조건으로 보았으나 구체적이면서 세분화된 성격 특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혼준비에 대한 연구에서 자녀양육·금전관리 및 역할분담(Kim & Shin, 2002; Kim & Lee, 2003), 가사노동 분담과 경제생활 설계(Koh et al., 2003), 경제문화 대화와 자녀·친인척문제의 대화(Chung, 2003)와 같은 역할분담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배우자 선택의 조건으로 보지는 않았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배우자 선택에 대한 연구는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여대생을 중심으로 희망하는 사회경제적 조건 위주의 연구만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배우자 선택권이 늘어난 미혼의 직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며, 배우자 선택의 조건 또한 사회경제적 특성에 국한된 것이 아닌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역할가치관 특성을 체계적으로 알아보는 배우자 선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시와 6개의 광역시, 시·군 단위에서 모인 K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결혼적령기의 미혼 여성 295명을 대상으로 하여 편의(임의) 표집을 하였다. 본 조사의 설문지 배부는 2010년 7월 12일 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로 1년의 기간 동안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연령은 26-30세 이하(56.61%)가 절반을 차지하였고, 31-35세 이하, 25세 이하, 36세 이상의 순이다. 교육수준은 대졸(63.05%), 대학원 이상(36.95%)으로 대졸이상의 교육수준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46.44%)가 가장 많았으며, 수입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66.78%)이 가장 많았다.

2. 측정 도구와 동질성 범위

1) 사회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수입, 직업지위, 종교에 관한 문항으로 교육수준 2단계, 수입 5단계, 직업지위 4단

계, 종교 4가지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연령은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감의 연령차가 3세 이내일 경우 동질혼으로, 4세 이상 연상이거나 연하일 경우 이질혼 경향으로 분석하였다. 교육수준, 수입, 직업지위, 종교가 본인과 같은 경우 동질혼으로, 다른 경우 이질혼 경향으로 분석하였다.

2) 신체적 특성

신체적 특성은 Lee(2009)의 신체 이미지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3문항의 7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매력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본인과 배우자감의 신체적 특성에 관한 응답자들의 평균을 구하고, 평균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개인의 평균이 중앙값 이상일 경우 ‘높은 집단’, 중앙값 미만일 경우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고 본인과 배우자감이 같은 집단에 속할 경우 동질혼 경향으로 분석하였다.

3) 심리적 특성

심리적 특성은 성격과 성역할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신경성, 개방성, 외향성의 척도는 Kim & Kim(2009)의 척도를 사용하여 각 3문항으로 구성하였고 7점 Likert 척도로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성격특성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신경성의 Cronbach- α 값은 .77이고 개방성의 Cronbach- α 값은 .65, 외향성의 Cronbach- α

Table 1.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N=295)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Category			
Age	~25	35	11.86	Religion	None	137	46.44
	26~30	167	56.61		Christian	64	21.69
	31~35	72	24.41		Buddhist	48	16.27
	36~	21	7.12		Catholic	46	15.59
	Total	295	100.00		Total	295	100.00
Educational Level	Undergraduate or lower	186	63.05	Income	1~2million won	42	14.24
	Graduate or higher	109	36.95		2~3million	197	66.78
	Total	295	100.00		3~4million	35	11.86
					4~5million	8	2.71
					5million and higher	13	4.41
Total	295	100.00	Total	295	100.00		

값은 .84이다. 신경성, 개방성, 외향성의 성격특성은 중앙값을 기준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고 본인과 배우자감이 같은 수준의 집단에 속할 경우 동질성으로 분석하였다. 상보적 성격은 Chung et al.,(2003)에서 사용한 성격을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수정하고, 지배, 양육, 성취로 분류하여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로 의미분석법을 적용하였다.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지배적 성격, 양육적 성격, 성취적 성격이며, 측정점수가 낮을수록 각각의 성격특성에 대한 순종적 성격, 의존적 성격, 대리성취적 성격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지배-순종, 양육-의존, 성취-대리성취와 같이 상보적인 성격특성은 본인과 배우자감이 비슷한 수준의 성격특성을 선호하는 경우에 동질혼 경향으로, 본인과 다른 수준의 상호보완적 성격특성을 선호하는 경우에 이질혼 경향으로 분석하였다.

성역할 특성은 Lee(2004)이 사용한 성역할 성향 척도를 사용하였고 여성성, 남성성은 각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남성성의 Cronbach- α 값은 .66, 여성성의 Cronbach- α 값은 .58이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고 채점은 중앙치 분리법을 채택하였다. 남성성문항의 평균값과 여성성문항의 평균값으로 전체 집단에서 중앙치를 계산한 다음 남성성, 여성성 점수가 모두 중앙치 이상이면 양성성 집단으로 분류한다. 남성성 점수가 중앙치 이상이고 여성성 점수가 중앙치 미만이면 남성성 집단으로, 여성성 점수가 중앙치 이상이고 남성성 점수가 중앙치 미만이면 여성성 집단으로 분류하고 둘 다 중앙치 미만이면 미분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성역할 특성은 여성성, 남성성, 양성성, 미분화로 분류하고 본인과 배우자감이 같은 수준의 성역할 특성을 선호하는 경우에 동질혼 경향으로, 다른 수준의 성역할 특성을 선호하는 경우에 이질혼 경향으로 분석하였다.

4) 역할가치관 특성

역할가치관은 가족 역할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는 것으로 자녀양육역할, 가사노동, 경제적 역할, 정서적 역할, 친족유지역할, 여가생활관련 역할, 자기계발 역할이며 평등

부부 개념에서 도입된 7가지 영역의 역할 분류에 근거하여 선정하였다(Shin & Cho, 2006). 각 역할은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7점 Likert 척도로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가 높은 것이다. 각각의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이 본인과 배우자감이 비슷한 경우 동질혼 경향으로, 다를 경우 이질혼 경향으로 분석하였다. 성역할 태도는 Lee(2004)의 5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고 Cronbach- α 값은 .67이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로 의미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중앙값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높은 경우 ‘근대적 성역할 태도 집단’과 낮은 경우 ‘전통적 성역할 태도 집단’으로 분류하여 본인과 배우자감이 같은 수준의 집단에 속할 경우 동질성으로, 다른 집단에 속할 경우 이질혼 경향으로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배우자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선호도

배우자감에 대한 선호도는 <Table 2>와 같이, 본인과 배우자감의 연령 차이는 1~3세 연상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67.80%), 4세 이상 연상(11.19%), 동갑(10.85%), 상관없음(4.75%), 1~3세 연하(4.41%), 4세 이상 연하(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Hong Dal(2003)의 여대생이 가장 선호하는 연령(3~4세 연상)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Seo(2008)의 연구에서는 연상여성과 연하남성의 커플이 늘고 있는 추세였으나 미혼여교사들은 연령차가 적은 연상을 선호하고 있다. 배우자감의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대졸(63.05%)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그 다음이 대학원이상(36.95%)으로 나타나, 대졸의 배우자감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혼여교사의 교육수준(대졸, 63.05%)과 같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미혼여교사는 교육수준이 같은 배우자감을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Hong Dal(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배우자감의 종교는 무교(55.59%), 기독교(20.34%), 천

Table 2. Preferre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Prospective Spouses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Age	4 or more yrs younger	3	1.02	Religion	None	164	55.59	
	1~3yrs younger	13	4.41		Christian	60	20.34	
	Same age	32	10.85		Catholic	39	13.22	
	1~3yrs older	200	67.80		Buddhist	31	10.51	
	4yrs older	33	11.19		Other religion	1	0.34	
	No preference	14	4.75		Total	295	100.00	
	Total	295	100.00	Occupation	Service/Technical, Clerial	61	20.68	
Education al Level	Undergraduate or lower	186	63.05		Professional	223	75.59	
	Graduate or higher	109	36.95		Administrative	6	2.03	
	Income	Total	295		100.00	Other	5	1.69
						1~2million won	5	1.69
2~3million				66		22.37		
3~4million				150		50.85		
Income	Total	295	100.00	4~5million	40	13.56		
				5million and higher	34	11.53		
				Total	295	100.00		
				Total	295	100.00		

주교(13.22%), 불교(10.51%)의 순서로 선호도가 나타났으며, 가장 선호하는 배우자감의 종교가 무교인 것은 연구 대상자들의 종교(무교, 46.44%)에서 무교인 집단이 많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업에 있어서는 전문직 종사자(75.59%)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서비스 및 기능·사무직 종사자(20.68%), 관리직 종사자(2.03%), 기타(1.69%)의 순서로 선호하였다. 미혼여교사가 가장 선호하는 배우자감의 직업이 자신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로 나타난 결과는 Seo(2008)의 연구와 일치한다.

배우자감의 수입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50.85%)을 가장 선호하였고,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2.3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13.56%), 500만원 이상(11.53%)의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미혼여교사가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본인의 수입(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66.78%)과 비교하여 보면, 배우자감의 경제력에서 자신보다 높은 수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Seo(2008)과 Hong Dal(2003)의 연구에서와 같이 미혼여교사는 자신보다 나은 수입의 배우자감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본인과 배우자감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동질혼 추구 경향

미혼 여교사의 배우자 선택 시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동질혼 추구 경향은 <Table 3>과 같다. 사회경제적 특성에서 연령은 1~3세 연상이 67.80%, 동갑이 10.85%, 1~3세 연하가 4.41%로 동질혼의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동질혼의 경향을 추구하는 집단은 대체로 연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하여 4세 이상의 연령 차이를 선호하는 이질혼 집단에서는 연상(1.02%)보다는 연하(11.19%)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학력이 같은 배우자감을 선호하는 동질혼이 72.20%, 학력이 다른 배우자감을 선호하는 이질혼이 27.80%로 같은 교육수준을 선호하는 동질혼의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수입은 본인과 비슷한 수준(40.34%) 보다는 본인보다 높은 수준(59.66%)의 수입을 선호하는 이질혼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지위의 경우 본인과 같은 수준의 전문직을 선호하는 동질혼 75.59%, 다른 수준의 직업을 선호하는 이질혼 22.71%로 직업지위가 같은 수준을 선호하는 동질혼의 경

Table 3. Homogeneity i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N=295)

Self -Spouses		Frequency	Percentage(%)	Frequency	Percentage(%)		
Age	Homogeneous(same age)	32	10.85	245	83.05		
	(1 ~3yrs younger)	13	4.41				
	1 ~3yrs older)	200	67.80				
	Heterogenous(4yrs younger)	33	11.19				
	(4yrs older)	3	1.02				
Educational Level	(No preference)	14	4.75	14	4.75		
	Homogeneous(Graduate-Ggraduate)	145	49.15	213	72.20		
	(Graduate or higher-Graduate or higher)	68	23.05				
Religion	Heterogenous(Graduate or higher-Graduate)	41	13.90	82	27.80		
	(Graduate-Graduate or higher)	41	13.90				
Occupation	Homogeneous(None-None)	132	44.75	257	87.12		
	(Christian-Christian)	59	20.00				
	(Catholic-Catholic)	36	12.20				
	(Buddhist-Buddhist)	30	10.17				
	Heterogenous(Religion-None)	14	4.75				
	(None-Religion)	4	1.36				
Income	(Religion-Other religion)	3	1.02	21	7.13		
	Homogeneous(Professional)	223	75.59			223	75.59
	Heterogenous(Service/Technical, Clerial)	61	20.68			67	22.71
	(Professional)	6	2.03				
Income	(Other)	5	1.69	5	1.69		
	Homogeneous(1 ~3million-1 ~3million)	70	23.73	119	40.34		
	(3 ~500million-3 ~500million)	37	12.54				
	(500million higher - 500million higher)	12	4.07				
	Income	Heterogenous(1 ~300million-3 ~500million)	152	51.53	176	59.66	
		(1 ~300million-500million higher)	17	5.76			
		(3 ~500million-500million higher)	5	1.69			
(3 ~500million-1 ~300million)		1	0.34				
(500million higher-3 ~500million)		1	0.34				

향이 높게 나타났다. 종교는 87.12%가 본인과 배우자감이 동일한 종교를 선호하고, 12.88%가 다른 종교를 선호하여 종교에 있어서 동질혼을 높게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질성을 추구하는 집단에서 무교의 동질성(44.7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본인과 배우자감의 신체적 특성의 동질혼 경향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매력 정도에서 '본인이 느끼는 신체적 매력'의 평균이 4.98, '타인에게 보이는 신체적 매력'이 4.73, '본인이 느끼는 성적 매력'이 4.50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특성의 전체 평균이 4.73으로 나타나

미혼여교사는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보통보다 조금 높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Table 4 참조>.

배우자감에 대한 신체적 특성에 대한 선호도는 '본인이 느끼는 배우자감의 매력', '타인에게 보이는 배우자감의 매력', '배우자감의 성적 매력'의 순서로 나타났다(각 4.96, 4.50, 4.49). 배우자감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전체평균이 4.65로 보통이상의 신체적 특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본인의 신체적 특성을 보통이상으로 평가한 결과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모두 외모에 대한 선호도를 보이는 Seo(2008)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체적 특성은 남성이 여성에게 요구했던 배우자감의 특성이었으나 여성들도 배우자감의 특성으로 매력적인 외모를 선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Table 4 참조>.

본인과 배우자감이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신체적·성

Table 4. Homogeneity in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elf and Prospective Spouses(N=295)

	Self		Spouses	
	Average	Standard Devi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self-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	4.98	1.16	4.96	1.25
Physical attractiveness perceived by others	4.73	1.12	4.50	1.20
self-perceived sexual attractiveness	4.50	1.08	4.49	1.21
Physical characteristics Total	4.73	0.95	4.65	1.04

Self -Spouses	Frequency	Percentage(%)	Frequency	Percentage(%)
Homogeneous(High-High)	111	37.63	244.00	82.71
(Low-Low)	133	45.08		
Heterogenous(High-High)	23	7.80	51.00	17.29
(Low-Low)	28	9.49		

적 매력 수준이 자신과 동일한 수준을 선호하는 집단이 82.71%, 다른 수준을 선호하는 집단은 17.29%로 신체적 특성에 있어서 동질혼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참조>.

4. 본인과 배우자감의 심리적 특성의 동질혼 경향

본인의 성격특성에서 개방성 성격의 평균이 4.71로 가장 높았다. 외향성이 4.56이고 신경성이 3.64로 나타났다. 이에 미혼여교사의 개방성과 외향성이 높은 편이나 신경

성은 낮은 편으로 보인다. 상보적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성취적 성격의 평균이 5.11로 가장 높았고 양육적 성격이 4.81, 지배적 성격이 3.66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여교사의 성취적 성격과 양육적 성격은 높은 편이나 지배적 성격은 낮은 편으로 보인다. 본인의 성역할 특성은 남성성(40.68%)이 가장 많으며 미분화(21.02%), 양성성(20.00%), 여성성(18.31%)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5 참조>.

배우자감의 성격특성에서 개방성의 평균이 4.96으로 개방성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외향성 4.95, 신경성 2.17의 순서로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가장 선호하는 배우자감의 성격특성은 개방성이며, 신경성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Preferre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elf and Prospective Spouses

		Self		Spouses		
		Average	Standard Devi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Personality	Neuroticism	3.64	1.21	2.17	0.85
		Openness	4.71	1.03	4.96	0.97
		Extroverted	4.56	1.14	4.95	0.95
	Complimentary	Dominant	3.66	1.41	3.18	1.32
		Nurturing	4.81	1.19	5.24	1.11
		Achievement-oriented	5.11	1.15	5.37	1.15

		Self		Spouses	
		Frequency	Percentage(%)	Frequency	Percentage(%)
Sex role characteristics	Masculine	120	40.68	92	31.19
	Undifferentiated	62	21.02	80	27.12
	Androgenous	59	20.00	62	21.02
	Feminine	54	18.31	61	20.68
	Total	295	100.00	295	100.00

Table 6. Homogeneity i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N=295)

characteristics	Self -Spouses	Frequency	Percentage (%)	Frequency	Percentage (%)		
Personality Traits	Neuroticism	Homogeneous(High-High)	111	37.63	165	55.93	
		(Low-Low)	54	18.31			
	Openness	Heterogenous(High-Low)	32	10.85	130	44.07	
		(Low-High)	98	33.22			
		Homogeneous(High-High)	100	33.90			
		(Low-Low)	98	33.22			
	Extroverted	Heterogenous(High-Low)	35	11.86	97	32.88	
		(Low-High)	62	21.02			
		Homogeneous(High-High)	89	30.17			
		(Low-Low)	89	30.17			
	Complimentary characteristics	Self achievement	Homogeneous(High-High)	131	44.41	198	67.12
			(Low-Low)	67	22.71		
Vicarious achievement		Heterogenous(High-Low)	68	23.05	97	32.88	
		(Low-High)	29	9.83			
Nurturing		Homogeneous(High-High)	153	51.86	194	65.76	
		(Low-Low)	41	13.90			
Dependent		Heterogenous(High-Low)	25	8.47	101	34.24	
		(Low-High)	76	25.76			
Nurturing-Dependent		Homogeneous(High-High)	121	41.02	173	58.64	
		(Low-Low)	52	17.63			
Dominant-Submissive		Heterogenous(High-Low)	43	14.58	122	41.36	
		(Low-High)	79	26.78			
Sex role characteristics	Homogeneous	(Masculine-Masculine)	31	10.51	94	31.86	
		(Feminine-Feminine)	9	3.05			
		(Androgenous-Androgenous)	34	11.53			
		(Undifferentiated-Undifferentiated)	20	6.78			
		Masculine-Feminine)	29	9.83			
		(Masculine-Androgenous)	31	10.51			
	Heterogenous	(Masculine-Undifferentiated)	29	9.83	201	68.14	
		Total	195	66.1			
		(Feminine-Masculine)	21	7.12			
		(Feminine-Androgenous)	19	6.44			
		(Feminine-Undifferentiated)	5	1.69			
		Total	206	69.83			
	Undifferentiated-Androgenous	(Androgenous-Masculine)	21	7.12	142	48.13	
		(Androgenous-Feminine)	13	4.41			
		(Androgenous-Undifferentiated)	8	2.71			
		Total	164	55.59			
		(Undifferentiated-Masculine)	7	2.37			
		(Undifferentiated-Feminine)	10	3.39			

성취적, 지배적, 양육적의 상보적 성격에 대해 배우자감의 성격을 살펴본 결과 성취적 성격의 평균이 5.37로 가장 높고, 양육적 성격 5.24, 지배적 성격 3.18 순으로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가장 선호하는 배우자감의 성격 특성은 성취적 성격과 양육적 성격이고 선호하지 않는 성격 특성은 지배적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배우자감의 성역할 특성에서 양성성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으며(31.19%), 남성성(27.12%), 미분화(21.02%), 여성성(20.68%)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Lee(2004)에서 여성들은 남성의 남성성이 높을수록 대화를 많이 하고 여성성이 높을수록 관계에 더 개입한다는 결과를 보여 여성들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두 가지 특성을 가진 남성과의 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여교사들도 양성성과 남성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Lee(2004)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Table 5 참조>.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경성, 외향성, 개방성의 성격특성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감의 성격 동질성을 살펴본 결과 개방성 67.12%, 외향성 60.34%, 신경성 55.93%로 나타나 동질혼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순종, 양육-의존, 성취-대리성취와 같은 상보적 성격에 대한 본인과 배우자감의 동질성을 살펴본 결과도 성취적 성격(67.12%), 양육적 성격(65.76%), 지배적 성격(58.64%) 순으로 나타나 상호보완적 성격을 추구하는 이질혼 보다는 비슷한 수준의 성격 특성을 선호하는 동질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심리적 성역할 특성은 본인과 배우자

감의 동질적인 성역할 특성(31.86%)을 추구하기보다 이질적(68.14%) 특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성역할에서 남성성 집단은 동질성(10.51%)보다 이질성(30.17%)을 추구하였고, 여성성 집단도 동질성(3.05%)보다 이질성(15.25%)을 추구하였으며, 양성성 집단은 동질성(11.53%)과 이질성(14.24%)을 비슷한 수준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분화 집단은 동질과 이질성의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5. 본인과 배우자감의 역할가치관 특성의 동질혼 경향

가족 역할분담의 참여에 대한 본인의 기대의사는 정서적 지지 역할의 평균이 5.96, 여가생활 관련 역할 5.72, 자녀양육 역할 5.69, 자기계발 역할 5.55, 친족유지 역할 5.32, 경제적 역할 5.31, 가사노동 역할 4.9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역할분담에서 가사노동이 가장 낮으나 중간값 보다는 높아 본인의 가사노동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역할분담 기대의 전체 평균이 5.50으로 결혼 후 가정에서본인의 역할분담에 대한 미혼여교사의 참여기대는 높은 편이다.

배우자감의 가족 역할분담에 대한 역할 기대를 살펴본 결과 정서적 지지 역할의 평균이 6.06으로 가장 높았다. 여가생활 관련 역할 5.91, 경제적 역할 5.80, 자녀양육 역할 5.79, 자기계발 역할 5.66, 친족유지 역할 5.50, 가사노동

Table 7. Preferred Family Role Expectations of Self and Prospective Spouses

		Self		Spouses		
		Average	Standard Devi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Family Role characteristics	Family Role Expectation	Child Care	5.69	0.90	5.79	0.89
		Household Labor	4.94	1.11	5.27	1.00
		Emotional Support	5.96	0.89	6.06	0.87
		Economic Providing	5.31	1.04	5.80	0.97
		Leisure	5.72	1.01	5.91	0.94
		Kin-Keeping	5.32	1.10	5.50	1.05
		Self-Development	5.55	0.97	5.66	0.96
		Family Role Total	5.50	0.75	5.71	0.73
Sex Role Attitudes	Progressive sex role attitudes	5.72	0.87	5.69	0.86	

역할 5.27의 순으로 역할기대감이 나타났다. 역할기대감에서 가장 높은 배우자감의 가족 역할은 정서적 지지 역할이며, 가장 낮은 역할은 가사노동 역할이다. 그러나 가사노동 역할도 5.27로 역할 분담에 대한 기대감이 중간이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배우자감의 역할기대에 대한 전체평균이 5.71로 배우자감에 대한 역할기대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가치관에서 근대적 성역할 태도에 대한 본인의 평균은 5.72로 나타났고, 배우자감의 평균이 5.69로 나타나 미혼여교사는 근대적 성역할 태도의 성향을 가진

배우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배우자 선택의 조건으로 가치관을 중요하다고 보고한 Hong Dal(2003)의 연구와 일치하나 가치관을 하나의 조건으로만 보고 가치관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을 보지 않았다<Table 7 참조>.

<Table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역할가치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감에 대한 가족 내 역할 기대 수준이 비슷한 것을 선호하는 동질성(81.69%)이 다른 기대 수준을 추구하는 이질성(18.31%)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역할기대에 대한 동질성 선호 수준은 여가 생활 역할

Table 8. Homogeneity in Family Role Expectations(N=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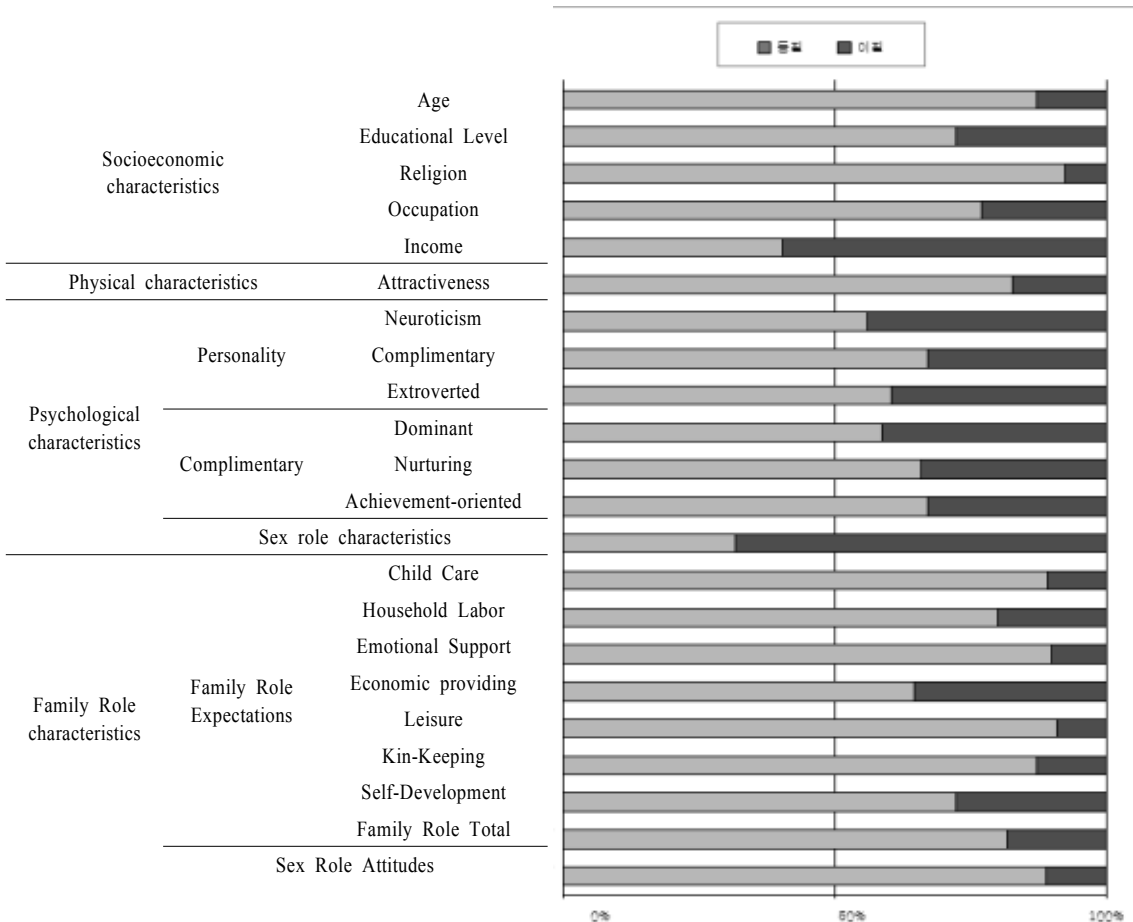
characteristics	Self -Spouses	Frequency	Percentage(%)	Frequency	Percentage(%)
Child Care	Homogeneous(High-High)	62	21.02	263	89.15
	(Low-Low)	201	68.14		
	Heterogenous(High-Low)	12	4.07		
Household Labor	(Low-High)	20	6.78	32	10.85
	Homogeneous(High-High)	86	29.15		
	(Low-Low)	150	50.85		
Emotional Support	Heterogenous(High-Low)	19	6.44	59	20.00
	(Low-High)	40	13.56		
	Homogeneous(High-High)	100	33.90		
Economic Providing	(Low-Low)	165	55.93	265	89.83
	Heterogenous(High-Low)	7	2.37		
	(Low-High)	23	7.80		
Leisure	Homogeneous(High-High)	65	22.03	191	64.75
	(Low-Low)	126	42.71		
	Heterogenous(High-Low)	81	27.46		
Kin-Keeping	(Low-High)	23	7.80	104	35.25
	Homogeneous(High-High)	79	26.78		
	(Low-Low)	189	64.07		
Self-Development	Heterogenous(High-Low)	4	1.36	27	9.15
	(Low-High)	23	7.80		
	Homogeneous(High-High)	116	39.32		
Family Role Total	(Low-Low)	141	47.80	257	87.12
	Heterogenous(High-Low)	11	3.73		
	(Low-High)	27	9.15		
Sex Role Attitudes	Homogeneous(High-High)	63	21.36	213	72.20
	(Low-Low)	150	50.85		
	Heterogenous(High-Low)	74	25.08		
Sex Role Attitudes	(Low-High)	8	2.71	82	27.80
	Homogeneous(High-High)	124	42.03		
	(Low-Low)	117	39.66		
Sex Role Attitudes	Heterogenous(High-Low)	21	7.12	54	18.31
	(Low-High)	33	11.19		
	Homogeneous(Progressive-Progressive)	155	52.54		
Sex Role Attitudes	(TraditionalTraditional)	107	36.27	262	88.81
	Heterogenous(Traditional-Progressive)	18	6.10		
	(Progressive-Traditional)	15	5.08		

(90.85%), 정서적 지지 역할(89.83%), 자녀양육 역할(89.15%), 친족유지 역할(87.12%), 가사노동 역할(80.00%), 자기계발 역할(72.20%), 경제적 역할(64.75%)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역할 기대 수준에서 본인의 역할 기대가 높은 집단은 배우자감의 역할 기대가 높게 나타났고, 본인의 역할 기대가 낮은 집단은 배우자감의 역할 기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 역할 수행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감의 공평한 참여 수준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태도는 본인과 배우자감이 동등한 성역할 태도를 추구하는 동질성 88.81%, 이질성 11.19%로 동질혼을 매우 높게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역할이 분리된 전통적 성역할 태도의 집단(36.27%) 보다는 평등한 성역할을 추

구하는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집단(52.54%)이 동질성을 높게 추구하는 것으로 남녀 평등적인 성역할 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는 자신과 배우자감의 사회경제적·신체적·심리적 특성과 역할 가치관 특성에 대한 동질혼 경향을 한 눈으로 요약한 것이다. <Table 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수입과 성역할 특성을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여교사는 동질혼 경향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Overall Homogeneity of Socioeconomic-Physical-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Family Role Expectations



V. 결론과 논의

본 연구는 295명의 미혼여교사 본인과 배우자감의 사회경제적 특성,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역할가치관을 조사하여 미혼여교사가 선호하는 배우자감의 특성과 자질을 파악하여 동질혼 경향을 보고자 하였다.

미혼여교사 본인과 배우자감의 사회경제적 특성,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그리고 역할가치관에 대해 얼마나 비슷한 특성을 추구하는지를 보는 동질혼 경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 교육수준, 직업지위, 수입, 종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서는 동질혼 경향을 추구하고 수입에 있어서는 이질혼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본인과 배우자감이 자신과 타인에게 보이는 신체적, 성적 특성에서 자신과 비슷한 신체적, 성적인 매력을 추구하는 동질혼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개방성, 외향성, 신경성의 성격특성에서 동질혼 경향을 보이고 상보적 성격인 성취적, 양육적, 지배적 성격도 동질혼을 추구하였다. 성역할 특성에서 본인과 배우자감의 성역할 특성이 비슷한 수준의 성역할 특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다른 수준의 성역할 특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았다. 넷째, 역할가치관에서는 7가지 역할인 여가생활 역할, 정서적 지지 역할, 자녀양육 역할, 친족유지 역할, 가사노동 역할, 자기 계발 역할, 경제적 역할 모두에서 동질혼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인의 역할 기대가 높은 집단은 배우자감의 역할 기대도 높게 나타난 반면, 본인의 역할 기대가 낮은 집단은 배우자감의 역할 기대도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역할 기대감의 동질성 경향은 본인과 배우자감의 역할 참여가 공평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성역할 가치관에서 동질혼 경향을 추구하고 있으며 전통적 성역할 태도의 집단보다는 근대적 성역할 태도의 집단 간의 동질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미혼여교사는 배우자감이 자신과 비슷한 사회적 배경, 신체적 매력 수준, 심리적 특성을 가진 동질혼을 추구하고, 가족 내에서 양성적이며 평등한 수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배우자감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미혼여교사가 배우자감이 높은 수입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 결과는 교육수준과 직업수준이 비슷한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여성이 상향혼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자신이 직업이 있으나 배우자감이 가장으로서 경제적 부양자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부분적으로는 교사의 수입이 다른 전문 직업군에 비교할 때,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둘째, 자신의 신체적 성적 매력 정도나 배우자감의 선호하는 신체적 성적 매력 정도가 다른 심리적 특성이나 역할기대감 수준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여교사들이 배우자감의 외모나 신체적 매력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개방성, 외향성 성향의 배우자감을 선호하고 그에 대한 동질성 성향도 높으나, 신경성 성향에 대한 선호도가 낮고 동질혼 성향도 낮은 결과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거나 결혼 적응에 개방성, 외향성은 긍정적인 관계가 있고, 신경성은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Kim & Kim, 2009)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신경성 사람은 쉽게 화를 내고, 비판에 민감하며, 부정적인 문제나 사건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여 자신의 적응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도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 추구하는 성격 특성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자신과 배우자감에게 기대하는 모든 역할수준이 높고 특히 정서적 여가생활 역할, 자기계발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은 애정적이고 친밀감을 요구하는 현대부부관계의 애정적, 동반자적인 관계의 특성을 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가사노동 역할에 대한 자신과 배우자감에 대한 기대감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가사노동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 빨래 등의 가사노동은 기계화가 보편화 되어 있어,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낮고, 오히려 자녀 돌봄이나 남편과의 정서적 관계를 더 많이하기를 원한다고 볼 수도 있다. 같은 맥락으로 여교사의 성역할가치관도 남녀평등적인 태도로 비교적 가족역할을 동등하게 하는 배우자를 원한다고 추측된다. 다섯째, 본 연구는 자신과 배우자감에 대한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역할가치관에 대한 특성이나 자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연령의 변화나 교재 기간에 따른 특성과 관계에 대한 만

족도나 애정감 정도와의 관계를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여교사의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역할가치관에서 동질혼을 추구한다고 나온 결과는 비교적 연구대상자의 동일집단 구성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여교사는 비교적 젊고, 안정된 직업의 전문직 종사자이며, 보수적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배우자 선택의 폭이 클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추구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미혼여교사를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여 현재 우리나라 미혼여성의 배우자 선택의 선호도와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배우자 선택의 일반적인 경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미혼여성의 배우자 선택의 선호도와 동질혼 경향성을 조사하여 성별에 따른 배우자 선택의 선호도와 동질혼 경향성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미혼남녀에 대한 배우자 선택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결혼 적령기에 있는 전문직 여성의 배우자선택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동질혼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배우자선택의 이론에서 제시한 특성을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배우자 선택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회경제적 특성,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역할가치관 특성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Cho, H. J., Chong, H. E., & Moon, H. S. (1996). A Study on the unmarried male and female's mate selection and the sex attitude(III). *Journal of Korean Women's Liberal*, 3(2), 123-180.
- Chung, H. S. (2005). A study on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Premarital Education Program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1), 151-159.
- Goldstein, J. R., & Kenney, C. T. (2001). Marriage delayed or marriage forgone? New cohort forecasts of first marriage for U.S. women. *American Sociological status. Review*, 66, 506-519.
- Hong Dal, A. G. (2003). A Study on the Mate Selection Tendency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 8(1), 75-97.
- Jung, O. B. (2005). *Understanding of marriage and family*. Sigmappress.
- Kalmijn, M. (1994). Assortative mating by cultural and economic occupational statu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 422-452.
- Kang, E. Y., Chin, M. J., & Ok, S. W. (2010). An Exploratory Study on the Factors Related to Women's Voluntary Ever-Singleness: Focusing on Marriage and Family Valu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8(2), 135-144.
- Kerckhoff, A. C., & Davis, K. E. (1962). Value consensus and need complementarity in mate sele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7, 295-303.
- Kim, D. S., Park, M H., & Jung, T. Y. (2009). Study of Mate selection and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experimental and cognitive and biological psychology*, 14(3), 305-328.
- Kim, H. S., & Kim, S. A. (2002). Development of Premarital Preparation Evaluation Scale. *Journal of the Korea Broadcasting Association*, 40(3), 41-53.
- Kim, H. S., & Lee, J. U. (2003). The Study on Premarital Preparation of Single Men and Wom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2), 211-224.
- Kim, K. M., & Kim, Y. H. (2009). Interaction of Couple's Personality Dimensions & Conflict Related to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4(3), 327-352.
- Kim, K. S., Kim, O. N., & Yoon, S. H. (1997). Gender

- Differences in the Conception of Love, Sexual Attitudes, and Mate Conditions of Unmarried Men and Wom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5(3), 15-30.
- Kim, Y. O. (1999). A Study on the View of Choice of Spouse and Marriage of Unmarried Women's College Students,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8(1), 29-43.
- Koh, S. J., Lee, H. A., Lee, K. Y., Choi, J. A., & Yu, W. Y. (2003). Premarital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 Integrated Approach Family Relation and Family Resource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6), 47-61.
- Lee, B. H. (2009). The Effects of Mass Media on Body Image, Self-Esteem and Depression - Focused on Female Students Attending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Broadcasting Association*, 23(3), 166-204.
- Lee, H. S. (2004). Role sharing and equity level in family roles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husband-wife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 Buk, Korea*.
- Lee, K. E., & Cho, B. E. (1994). The Effects of Mate Selection Factors on the Marital Satisfaction among the Urban Couples : A Social Exchange View.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2(2), 129-143.
- Lee, K. S. (2004). The effects of personality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commitment among couples. *Journal of Korea Psychological Association*, 9(3), 131-150.
- Lee, S. J., & Shin, H. S. (2000). Mate Selection Factors and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Women. *Korean homes and Journal*, 3(2), 13-26.
- Lichter, D. T., Anderson, R. N., & Hayward, M. D. (1995). Marriage markets and marital choice. *Journal of Family Issues*, 16, 412-431.
- Orbuch, T. L., Veroff, J., & Holmberg, D. (1993). Becoming a married couple: The emergence of meaning in the first years of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815-826.
- Park, K. S., Kim, O. H., & Kim, H. S. (2005). Main Causes of Delayed Marriage among Korean Men and Women; Contingent Joins of Status Homogamy, Gender Role Divisions, and Economic Restructuring.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8(2), 33-62.
- Ross, C. E. (1995). Reconceptualizing marital status as a continuum of social attach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129-140.
- Seo, S. Y. (2008). The New Face of Desirability : An Analysis of Perception of the Ideal Mate in Marriage Marke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3(2), 171-193
- Shin, H. Y., & Cho, B. E. (2006). The division of family roles and marital quality of Korean Americans : A comparison between working and non-working wives.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11(3), 147-172.
- Song, Y. H. (1998). Mate selection process and love of premarital couples : from S. V. R. theor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 Buk, Korea*.
- South, S. J. (1991). Sociodemographic differentials in mate selection preferenc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928-940.
- Sprey, J. (2000). Theorizing in family studies: Discovering proc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8-31.
- Stanley, S. M., & Markman, H. J. (1992). Assessing commitment in pers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595-608.
- Surra, C. A. (1990). Research and theory on mate selection and premarital relationships in the 198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844-865.
- The Statistics Korea (2011). 2011 Marriage, Divorce-related statistics Statistics. Seoul : The Statistics Korea
- Yoo, K. H. (2007). Changes in mate Selection Process in Korea since 1945, *Korean Studies Journal*, 34, 319-346.
- Yoo, Y. J., Kim, S. Y., & Kim, K. S. (2008). Family relations. Seoul: Kyomunsa.

<국문요약>

본 연구는 배우자 선택권이 늘어난 직업여성 중 미혼 여교사를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감의 사회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특성 그리고 역할가치관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여 배우자 선택의 동질혼 추구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과 6개의 광역시 및 시·군 단위에서 편의표집 한 결혼 적령기의 미혼 여교사 295명이고,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연구 내용에 따라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미혼 여교사가 추구하는 본인과 배우자감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측면에서 수입 이외의 특성에서는 동질혼 경향을 추구하였으나, 수입에 있어서는 자신보다 높은 수입의 배우자감을 선호하는 이질혼의 경향을 보였다. 신체적 특성에서는 자신과 비슷한 신체적 특성과 매력수준을 지닌 배우자감을 선호하는 동질혼의 경향을 보였고, 심리적 특성 중 개방성, 외향성, 신경성의 성격 특성에서는 자신과 비슷한 동질혼 경향을 추구하였으며, 성취적, 양육적, 지배적 성격과 같은 상호보완적 성격을 선호하는 측면에서 동질적인 성격 특성을 지닌 배우자감을 선호하였다. 또 다른 심리적 특성인 성역할 특성에서는 본인의 성역할 특성을 보완할 수 있는 성역할 특성을 지닌 배우자감을 선호하는 이질혼의 경향이 나타났다. 역할가치관의 동질성 추구 경향에서는 경제적 역할, 정서적지지 역할, 자녀양육 역할, 친족유지 역할, 가사노동 역할, 자기개발 역할, 여가생활 역할 등 모든 역할 기대감에서 동질혼 경향을 보였다. 각각의 역할에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역할 기대가 높은 집단은 배우자감에게 요구하는 역할 기대도 높게 나타났고, 본인에 대한 역할 기대가 낮은 집단에서는 배우자감에 대한 역할 기대도 낮게 나타나 본인과 배우자감 모두 가족역할에 공평하게 참여하기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역할 가치관에서 근대적 성역할 가치관을 가진 집단 간의 동질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평등적인 성역할 가치관을 추구하였다. 결과적으로, 직업을 가진 미혼 여교사는 자신과 비슷한 사회적 배경, 신체적 매력 정도, 심리적 특성을 지닌 배우자감을 선호하는 동질혼의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성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배우자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문접수일자: 2012년 8월 3일, 논문심사일자: 2012년 8월 8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10월 25일